

광주·전남 癌사망 하루 16명꼴

작년 5,724명 사망...10년전보다 13% 증가 인구 10만명 당 826명, 전남이 전국 최고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16명 가량이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이 광주의 2배를 넘어서는 등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 결과'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5천724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15.7명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는 지난해(5천761명)에 비해 0.6%(37명) 낮아진 것이지만 11년 전인 지난 1995년(5천52명)보다는 13.3%(672명) 급증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 각각 1천575명, 4천149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폐암 사망자는 전체의 22.3%(1천275명)로 가장 많았으며, 간암과 위암이 각각 17.8%(1천20명), 16.6%(948명)를 차지했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해 국내 3대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으로, 11만6천명이 이로 인해 사망했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47.6% 수준으로 지난 1997년(42.9%)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암 사망률은 지난 1996년 110.1명이었으나 10년 만에 24.7명이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암 사망률 가운데 폐암 사망률이 19.4명에서 28.8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대장암도 12.8명으로 10년전의 6.3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전남(825.6명)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광주(406.5명)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경북(736.2명), 강원(690.5명) 등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을 수록 사망률도

높았다. 이와 관련,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사망자 수는 24만3천934명으로, 2005년에 비해 1천577명 감소했다. 하루 평균으로는 668명이 사망하면서 전년(673명)에 비해 0.7%(5명) 줄었다.

전체 조사망률은 499명으로, 10년 전인 1996년에 비해서는 17.1명, 2005년에 비해서는 5.3명이 각각 감소했다. 또 1996년 대비 사망률 감소는 여자(-2.1명)보다 남자(-31.8명)가 훨씬 커 상대적으로 남성의 사망 위험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남자의 조사망률은 549.7명, 여자는 447.9명으로, 여전히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1.2배 높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통합민주신당·한나라당 등 5개 당 원내대표 “고흥도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라”

전남 일부지역 지정 방안 추진 합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등 5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제주도 이외에 고흥 등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가 큰 전남지역 일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한나라당 김경훈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5당 원내대표는 이번 태풍 피해 지역 중 고흥 등을 포함해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시켜 지원받는 방안 대해 협력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에는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태풍 '나리'로 인한 전남지역 피해액이 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20일 오후 4시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공공시설 379억 2천100만원과 민간시설 26억 6천700만원 등 모두 405억 8천800만원의 재산피해를 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재산피해에 포함되지 않은 농경지 침수가 4천354ha, 벼 쓰러짐 피해 1만1천960ha 등으로 나타났고 과수 낙과도 346ha에 이르렀다.

전남도는 20일에도 공무원과 군인, 민간인 등 모두 3만 9천850명과 굴착기 192대와 청소차 42대 등 장비 465대를 동원, 침수 지역 가로 정비와 청소, 방역작업, 벼베우기 등 응급복구 활동을 벌였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태풍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1천559가구 3천317명에 대해 1인당 1일 5천원씩 7일간의 응급구호비 2억 1천6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사망 또는 실종자 등의 가족 9가구에 1천만~2천만원의 위로금을,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 1천181가구에 100만~500만원의 위로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키로 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광주시 수돗물 공급 ‘도수터널’ 뚫는다

510억 투입 내년 동북댐~용연 정수장 연결 공사

광주시가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터널인 도수(導水) 터널을 뚫는다.

광주시는 20일 “취수원인 화순 동북댐과 동구 용연 정수장을 연결하는 도수터널 공사를 내년 착공, 2015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연장 12km, 직경 2.6m인 도수터널 건설에는 510억원이 투입되며 터널 완공과 함께 기존 옥상 관(管)은 폐쇄된다.

이와 함께 지난 71년 준공된 동구 지원정수장은 문을 닫게 되며, 이에 따라 용연정수장(85년 준공)은 기존 처리 용량이 27만에서 36만으로 확장된다.

도수터널과 정수장 확장, 배수지 건설 등 총 사업비는 1천268억원이 소요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이와 함께 지난 71년 준공된 동구 지원정수장은 문을 닫게 되며, 이에 따라 용연정수장(85년 준공)은 기존 처리 용량이 27만에서 36만으로 확장된다.

도수터널과 정수장 확장, 배수지 건설 등 총 사업비는 1천268억원이 소요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유럽을 순방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부부가 19일 오후(현지시간) 노르웨이 국왕 하랄 5세의 대행을 하고 있는 호른 마그누스 왕세자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2012 여수엑스포 유치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박준영지사 카리브해 연안 7개국 방문

여수엑스포 지지 호소

오는 11월 27일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카리브해 연안 7개국을 방문중인 박준영 전남지사가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박 지사는 20일 오전 안티구아바루에 도착, 세인트존스 공항에서 현지 언론과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상황 등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지사는 21일에는 볼드윈 스펜서(Baldwin Spencer) 수상을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제임스 칼라일(James B. Carlisle) 총독과의 면담을 통해 여수엑스포 유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박 지사는 18~19일 세인트키츠네비스를 방문해 덴질 더글라스(Denzil Douglas) 수상과 티모시 해리스(Timothy Harris) 외교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지지를 요청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

환경부 차관 김수현씨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새 환경부 차관에 김수현(45)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을 내정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김 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 도시연구소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에서 도시와 환경 문제 등을 연구했으며, 참여정부 들어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과 국민경제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양시의회·시민단체 반대 입장 표명 광양만권 통합 새국면

광양만권 통합이 광양시의회와 광양지역 시민단체의 반대 입장 표명으로 새국면을 맞게 됐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최근 순천시장과 여수시장, 광양시장이 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도시 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양 참여와 연대를 위한 시민모임도 20일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는 광양시와 순천시, 여수시 등 광양만권 3개 시의 통합 논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논평에서 “단체장들이 해당 지역민들로부터 충분한 이해도 구하지 않고 통합에 합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광양만권 도시 통합은 지역의 공동 번영과 대한민국의 고질적 병폐인 동·서 지역갈등 치유라는 대의명분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순천시장과 여수시장, 광양시장이 지난 5일 여수 MBC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통합을 합의한 지 2주 만에 나온 것으로, 광양시민들의 정서를 대변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가 14만명인 광양시는 여수시(29만 명)와 순천시(27만 명)에 비해 인구가 적은 데다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할 경우 통합 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우려 때문에 통합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 왔다.

그러나 광양시가 계속적으로 통합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도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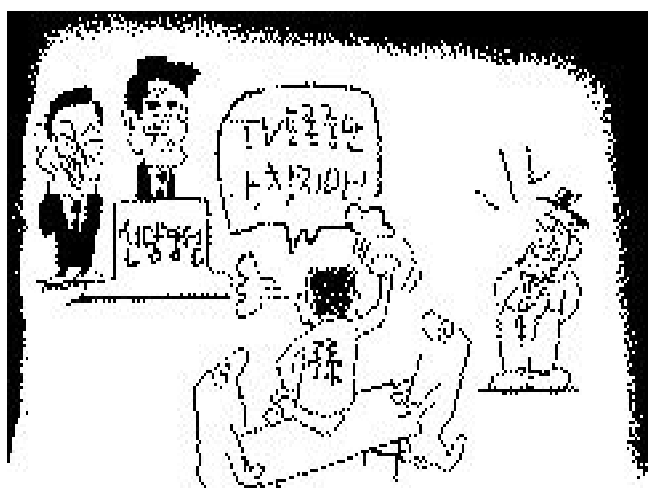
이미 이상용 광양시장이 원칙적으로 통합에 찬성한다며 2012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해 3개 시 통합을 통해 인구 70만 명 이상 중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세계박람회기구(BIE)에 통보키로 했기 때문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시가 통합을 반대한 뒤 만약 박람회 개최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박람회 개최가 결정된 후 실무 통합 논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실제 통합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통합시 명칭과 청사 위치, 공무원 수 감축, 주민 정서 통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통합 논의 과정에서의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지방종합

빛의만평

- 김중두



‘불쏘시개’ 정신은 어디가고...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아래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 직통: (062)227-9600, 220-0524, 0525
- FAX: 227-9500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설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은행: 001-107-228160 ◆농협: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상속한정승인공고

밤 안현구(520224-1654811)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행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나단 1017
공고인: 1.안용수 2.안해경 3.안해민
한정승인수일: 2007. 9. 10
공고기간: 2007. 9. 21 ~ 2007. 11. 20
연락처: 광주남구주월동 493-7 안해경(☎010-9660-3529)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귀사의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업무내용

- 건설업 면허 (법인) 양도·양수
- 법인 M&A(분할 합병)
- 건설업 신규등록 대행
- 기업진단 (공인회계사)
- 공제조합 출자금 대납
- 기타 건설업의 업무상담

(주)우성건설정보

본사
TEL: (02)587-7400
FAX: (02)597-8855

호남지사
TEL: (062) 226-6300
FAX: (062) 943-2244

고시원 매매

- ◆조대 후문쪽 고시원 매매
- ◆현재 운영 영업중인 고시원입니다.

- 5층건물 매대가 7억5천 (용지 3억5천 포함)
- 6층건물 매대가 7억5천 (용지 3억5천 포함)
- 6층건물 매대가 8억5천 (용지 4억 포함)
- 7층건물 매대가 9억5천 (용지 3억5천 포함)
- 4층-6층건물 매대가 20억 (용지 6억7천 포함)

-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시원에 투자하십시오.

H.P: 011-604-5239

당뇨병

영타리 치료법으로 고칠 수 없다

- 당뇨가 치료되지 않는 것은 파괴된 췌장 내 “랑게르한스(Langerhans: 랑게르한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물질)섬”이 재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 “랑게르한스 섬”을 재생시킬 수 있는 기적의 물질은 없는가?

※ 문의하신 모든 분들께 세계가 깜짝 놀랄 기적의 물질 일명 “천지영천수”에 대한 소책자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안내서 신청 문의◎
☎ 070-7012-0246

10월 28일 공인중개사 합격

21일 파이널특강

출제유형별 핵심요약 및 실전대비 최종정리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7도청 앞 전일빌딩 4F)
첨단점 ☎ 971-0002 (마포동 11번길 10 광우빌딩 4F)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